

대단원 표지 그림

- 학생들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책을 접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다.
- 책 읽기는 일상생활에 늘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 10차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통합 읽기 영역 + 문학 영역

대단원 설정 이유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감동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궁금한 점을 해결하며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글을 찾아 읽고 향유하는 것은 물론, 글을 해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 (1) 자화상
- (2) 책 속에 길이 있다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 성취기준

[문학 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05]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 학습 목표 〕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문학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을 생활화한다.



문학

진로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다.



읽기

“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는다.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진로 및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도 한다.

1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면서 문학을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기르고,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으면서 읽기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읽기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와 세계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



《 학습 과정 》

(1) 자화상

-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기.
- 문학 작품을 해석·평가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소통하기.

(2) 책 속에 길이 있다

-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기.
-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을 읽고, 책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기.

국어와 통 通하다

국어 속 진로

-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말에 담긴 뜻 알아보기.
- 직업의 이름에 담긴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현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대단원 핵심 역량 안내

- **자기 성찰·개발 역량:** 문학을 생활화하여 스스로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능력을 기른다.
- **자료·정보 활용 역량:** 책을 통해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독서 과정을 통해 정보를 선별하며 가치 있는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활용 능력을 기른다.

이 단원을 배우면,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며 그 속에 담긴 가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으면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총 3차시



📖 학습 목표 •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한다.

• 문학 작품을 해석·평가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소통한다.

👤 역량 목표 • 문학 작품을 읽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태도를 생활화한다.

자화상

소단원 도입 영상

생각
열기

다음 글을 읽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 보자.

활동 안내 시에 자유롭게 제목을 붙여 보면서 사람들마다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제시된 '식욕, 모기, 양파'가 왜 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 후, 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지 발표하게 한다. 여러 학생들이 생각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 식욕: 이미 충분한 양을 먹었는데도 계속 더 먹고 싶어지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모기: 날이 추워졌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모기에 대한 지긋지긋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 양파: 몇 번이나 껍질을 까도 끝없이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양파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하상욱, 『서울 시』

식욕

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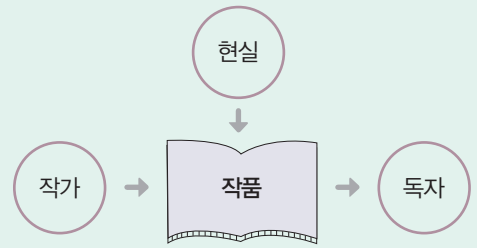
양파

예시 답안 • 볼펜: 잉크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글씨가 써지고, 한참을 쓰다가 이번에는 정말 다 쓴 줄 알았는데 다시 글씨가 써지는 볼펜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 그 외에 가능한 제목: 다 쓴 치약(시의 원제), 인터넷, 더위, 우주, 죽음 등

1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절대론적 관점
 한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쓴 작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현실, 작품을 읽는 독자도 이해해야 한



다. 즉, '작가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와 현실이 반영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관점 등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2 문학의 생활화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이기도 한다. 문학의 생활화란 이처럼 문학 작품을 읽은 후 어떠한 가치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는 것을 이른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자발적으로 문학 활동을 실천한다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가꿀 수 있을
문학의 생활화의 의미 문학을 생활화할 때의 효용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절대론적 관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창작 의도와 창작 동기, 작가의 삶 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독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스스로 질문하기

이 단원에서는 시를 읽으며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즐거움을 떠올리며,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해 보자.

예시 답안 •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란 무엇일까?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읽을 때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학습 포인트 · 시적 상황 · 화자의 행동과 심리 변화 · 주체적인 감상

● 이 작품은 화자가 우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내용의 현대 시이다. 화자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해 보자.

제목 풀이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라는 의미이다.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화상(自畫像) — 윤동주

작가 소개 영상 소단원 정리 PPT 시 낭송 영상

제재 구조도

1~2연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
3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
4~5연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6연	추억 속 자신에 대한 그리움.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고백적
어조	자신을 성찰하는 차분한 어조.	제재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 화해하는 마음.		
특징	· 평서문을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솔함. ·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형상화함.		



윤동주
(1917~1945)

시인. 자아를 고요히 응시하고 사색하는 내용의 시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표현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서시」,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등이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 ▶ 우물을 찾아 자아를 성찰함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시적 허용
공감각적 표현(촉각의 시각화)
▶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현실의 초라한 자아)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초라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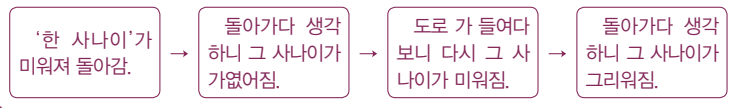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 애증의 반복으로 인한 내적 갈등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자아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화자(사나이) 자체에 대한 그리움(X)
화자의 순수했던 내면에 대한 그리움(O)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추억 속 자아에 대한 그리움
2연의 반복 →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감 부여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 발견 → 현실의 자아와의 화해, 내적 갈등 해소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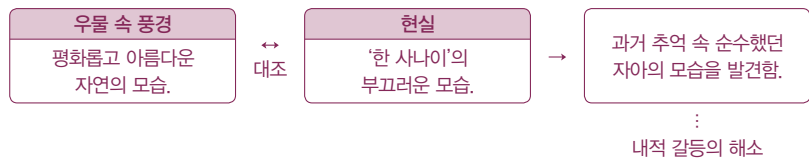
꼭꼭 정리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



꼭꼭 정리

우물 속 풍경과 현실의 대조



깜짝 퀴즈

1. 화자는 외딴 우물에 비친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보고 있다. → ○
2. 이 시의 '우물'은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 성찰
3. 화자의 심리는 계속 변화하여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끝까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



이해

활동 안내 이 시에서 화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우물 속 풍경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활동이다. 시에 제시되어 있는 시어를 찾아 쓰게 하며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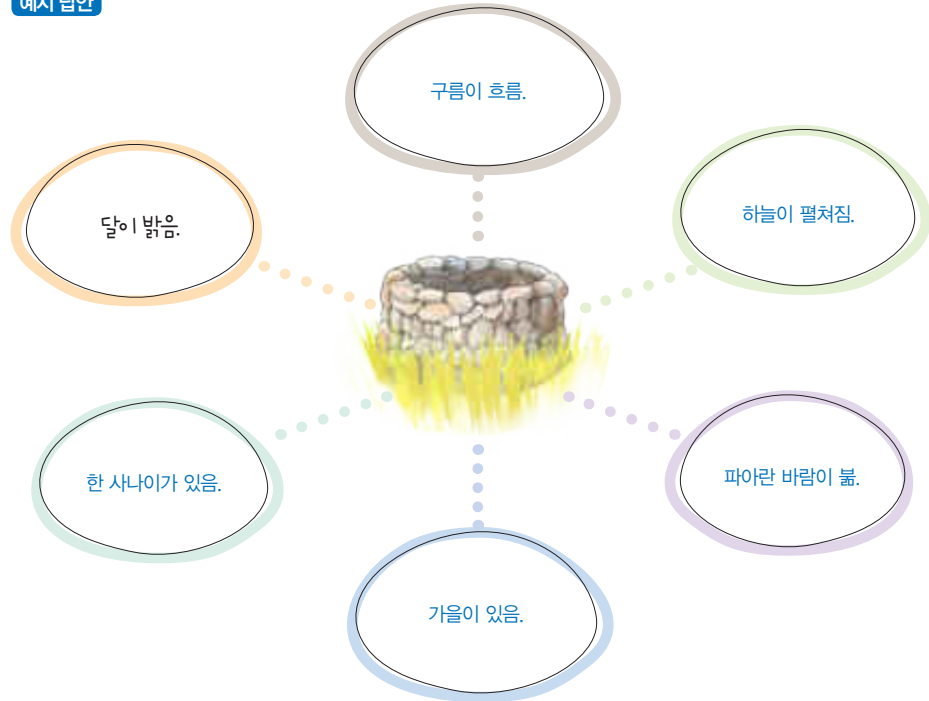
참고 자료

「자화상」에서 우물의 기능

-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 화자를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함.

1 이 시의 화자가 보고 있는 우물 속 풍경은 어떠한지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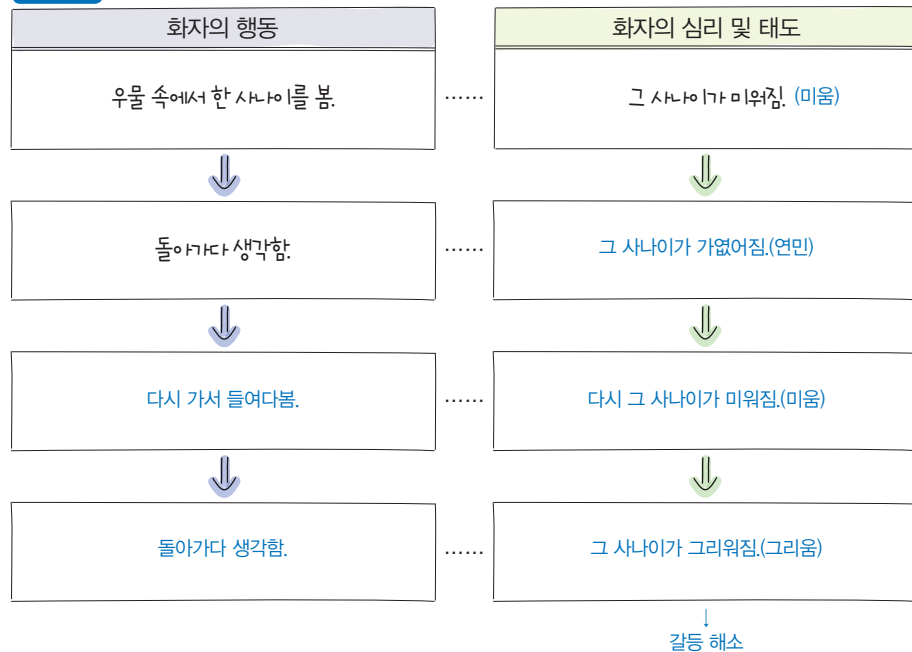
예시 답안



활동 안내 이 시에서 화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화자의 심리 및 태도가 어떠한지 추론해 보는 활동이다. 답을 채워 가면서 화자의 심리와 태도가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2 이 시 속 화자의 행동과 그에 따른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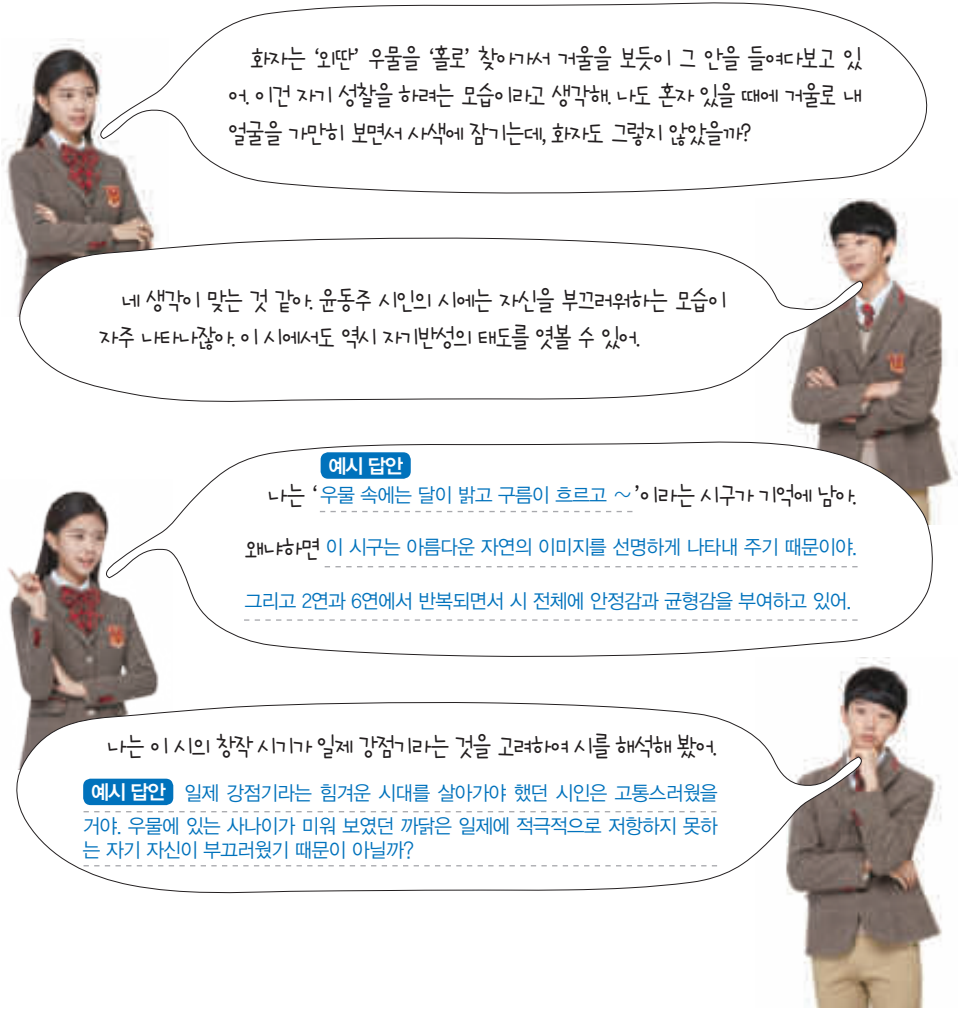
도움말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하고, 해석의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해 본다.

활동 안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 본 후,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이다.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타당한 근거는 있어야 하며, 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1 이 시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모둠

(1) 다음은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대화의 빈 곳을 채워 보자.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거울을 보듯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런 자기 생활을 하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나도 혼자 있을 때에 거울로 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시선에 잠기는데, 화자도 그렇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잖아. 이 시에서도 역시 자기 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예시 답안
나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이라는 시구가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이 시구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2연과 6연에서 반복되면서 시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어.

나는 이 시의 창작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고려하여 시를 해석해 봤어.

예시 답안 일제 강점기라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시인은 고통스러웠을 거야. 우물에 있는 사나이가 미워 보였던 까닭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2) 이 시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해 보고, 친구들이 해석한 내용과 비교해 보자.

자신이 해석한 내용	친구들의 해석과 같거나 다른 점
<p>예시 답안 이 시의 '사나이'는 윤동주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우물에 비추어 보며 미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시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결된다.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윤동주 시인이 안쓰러웠다.</p>	<p>예시 답안 친구는 '사나이'를 윤동주 시인이 아니라 시를 읽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하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아에 대해 애증을 반복하는 부분에서 크게 공감하였다고 한다. 친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p>

활동 안내 학생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문학 작품을 떠올려 보고, 이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글을 쓰면서 문학을 생활화하는 활동이다. 작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지닌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 예시 | 를 참고하여 자신이 읽었던 문학 작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글을 써 보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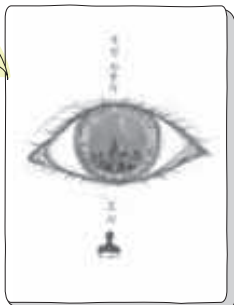


- **제목:** 길 위의 책
- **저자:** 강미
- **내용:** ‘필남’이라는 소극적인 성격의 주인공이 학교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필남’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방향을 끝내며 점점 성장한다.

- **기억에 남는 구절:** ‘어서 꽃 피는 시절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필남이는 알고 있었다. 그 일은 무수한 시간과 땅 밑의 부산함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걸.’
- **추천하는 이유:** 주인공인 ‘필남’이 읽는 책을 나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에 흥미가 생겼다. 또 내가 꿈꾸는 멋진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는 노력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책의 표지나 작품의 주요 장면을 그려 보자.

예시 답안



- **제목:** 눈먼 자들의 도시
- **저자:** 주제 사라미구
- **내용:**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전염병이 한 도시에 퍼지기 시작한다. 정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강제로 모아 수용소에 가둔다. 극한 상황 속에서 눈먼 자들은 인간성마저 시험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기억에 남는 구절:**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란 거죠.”
- **추천하는 이유:**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전염병에 걸려 갑작스레 실명하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간접 경험을 하게 해 준다. 또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용



활동 안내 소설의 일부분을 읽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정해진 답은 없고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문의 내용 안에서 근거를 찾아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 자료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1943년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동화이다.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인 '나'가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성찰하며 어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다.

제재 개관

갈래	동화
성격	우화적, 상징적
제재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
주제	어린 왕자의 순수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어른들의 모순된 세계를 바라보는 내용의 우화적인 이야기임. • 꾸밈없는 진솔한 문체와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음.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렸을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찾으려 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집 전체가 신비한 마법에 걸려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생각이 같은 걸 보니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서지기 쉬운 무슨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을 거란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비친 그 창백한 이마, 감겨 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 예시 답안**
- 눈에 보이는 외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서술자인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가면서 보물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린 왕자의 외면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순수함 때문이다.
 - 소중한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담긴 정서나 감정이라는 의미이다. '나'가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던 오래된 집을 신비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낀 이유는, 그 집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리하기

이 단원에서는 「자화상」을 읽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생각을 나누어 보았다. 다른 문학 작품을 더 읽어 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총 4차시

(2)

📖 학습 목표 •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다.
 •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을 읽고, 책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한다.

📖 역량 목표 •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독서 자료나 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분석·평가한다.

책 속에 길이 있다

📺 소단원 도입 영상

생각
열기

다음은 책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활동 안내 책과 관련한 그림을 보고 그 의미를 추론하며 책의 가치를 깨닫는 활동이다. 먼저 책과 불빛, 바다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책의 가치와 연결 지어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크빈트 부흐홀츠, 「북 라이트하우스(Book Lighthouse)」

예시 답안 • 책은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 책이 등대라면, 바다 위를 지나는 모든 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

• 책이 많이 쌓이면 불빛이 더 먼 곳까지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1 독서의 가치

독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해 주는 통로이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다. 독자는 독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책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독서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활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중 진로 및 관심사와 관련된 독서는 청소년에게 장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바람직한 독서 태도

독서를 할 때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여 책을 스스로 찾아 읽어야 한다. 즉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 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을 읽은 뒤에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독서 태도이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의 예술적 가치

- 인식적 가치: 문학이 현실 세계의 삶을 재현하기 때문에 창출되는 가치로, 작품을 통해 개인, 타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미적 가치: 삶과 세계를 개념이나 논리가 아닌 형상으로 포착한다는 점과 관련되며 작품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향유함으로써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다.
- 윤리적 가치: 문학이 추상적이거나 규범적 법칙이 아닌 구체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간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과 관련되며, 작품에 재현된 가치 갈등을 탐구하고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성찰함으로써 실천적 지혜를 함양할 수 있다.



스스로 질문하기

이 단원에서는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이나 책을 찾아 읽으며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해 보자.

예시 답안 •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

• 도움이 되는 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학습 포인트 · 글쓰이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 · 책 읽기의 가치

● 이 글은 글쓰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수필이다. 독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제목 풀이 「책 속에 길이 있다」의 '길'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책 속에는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 좀 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하는 제목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 이권우

소단원 정리 PPT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회고적, 교훈적
제재	독서
주제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특징	·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풀어남. ·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함.

제재 구조도

처음	글쓰이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
가운데	· 책 읽기의 가치. · 책 읽기의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그 곁과는 값짐.
끝	책 속에 길이 있으므로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야 함.



이권우
(1963~)

도서 평론가. 책을 소개하는 글을 주로 쓰고, 대학과 도서관 등에서 독서 및 글쓰기 관련 강연을 한다. 주요 저서로는 『책과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다』, 『영화관에서 글쓰기』 등이 있다.

- 함빡 분량이 차고도 남도록 넉넉하게.
- 문고(文庫) 출판물의 한 형식. 대중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값이 싸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부문별, 내용별 등 일정한 체계를 따라 자그마하게 만든다.

처음 「책」 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가족이 세 들어 살던 집 책과 관련한 글쓰이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글을 시작함 → 독자의 흥미 유발
은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집 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보였습니다. 외로울 때에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함빡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 교양 문고」라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한 반을 꾸려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에 기쁨과 격려, 흥분과 위안, 황홀과 행복이라는 느낌으로 뿌리내렸습니다.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을 충족해 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 책 읽기를 통해 정서적·경제적 결핍을 충족했던 글쓰이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

처음 글쓰이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

가운데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

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5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 내어도 비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 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

10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저는 이런 주장에

15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

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 나고, 흘러 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20 눈입니다.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

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

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

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직 책뿐이기 때문입니다. ▶ 책 읽기의 가치 ②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25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간접 경험

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

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합니

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결국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

숙을 기르는 것입니다. ▶ 책 읽기의 가치 ③

꼭꼭 정리

글쓰기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

유년 시절 '자유 교양 문고'를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행복을 느낀.



책 읽기로 결핍을 충족함.



책 읽기의 중요성을 깨달음.

글쓰기가 청소년기를 외로운 시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시 답안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여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쏟아 내어도 비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에 외로운 것이다.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예전에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곧 권력이었지만,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으며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충만(充滿)**해집니다. 한껏 차서 가득해집니다. '충만'은 '가득 참'으로 순화할 수 있다.

■ **장악(掌握)**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휘어잡은. 손안에 잡아 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예) 이순신 장군은 해상에서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시 답안 문학 작품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며, 결국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 **구절 풀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대조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을 '하기 쉬운 일'로, 책 읽기를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로 표현하였다.

■ **일리(一理)** 어떤 면에서 그런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지요.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그것이 곧 책입니다.
'책'의 비유적 표현

▶ 책 읽기의 가치 ③ - 문학 작품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함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볼 것 천지인 시대에 살면서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책이라는 게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투성이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우리 정신의 키는 훌쩍 자라납니다.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지만,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 줍니다.

가운데 책 읽기의 가치.

▶ 책 읽기의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결과는 가치 있음

꼭꼭 정리

글쓰기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

- ①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줌.
- ② 넘쳐 나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줌.
- ③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끝 ⁺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 말이지요.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 줍니다.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것 **말**로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 주지요.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심 봉사(沈奉事)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겁니다.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책을 읽으면 편견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휘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요. ▶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야 함

끝 | 책 속에 길이 있으므로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야 함.
- 이권우,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

깜짝 퀴즈

1. 글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
2. 글쓰는 책 읽기가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 있는 일이며,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 가치
3. 글쓰는 책을 읽어야 하는 시기를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기로 한정하였다. ➡ ×

꼭꼭 정리

「책 속에 길이 있다」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

원관념	보조 관념
문학 작품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
책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정신적 능력	정신의 키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	우리 눈의 비늘
바람직한 삶의 방향	길

⁺ **구절 풀이** 글쓰는 우리가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을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좋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서를 접한다면, 지식이 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그로 인해 경험과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글쓰기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시 답안 책을 읽으면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평(地平)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광휘(光輝) 눈부시게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학습 활동



이해

활동 안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며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글에 제시되어 있는 책 읽기의 필요성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 질문이다. 알맞은 답을 채워 가며 책 읽기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질문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눈이 필요함.
-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함.
-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함.

질문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음.
- 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음.
-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책 읽기가 필요하다.

활동 안내 생각그물을 채우면서 자신의 진로 및 관심사를 찾아가는 활동이다. 주어진 예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가운데에 쓰고, 그것과 관련한 대상을 하나씩 채워 가며 생각그물을 완성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자신이 꿈꾸는 진로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목표

●● 자료실

생각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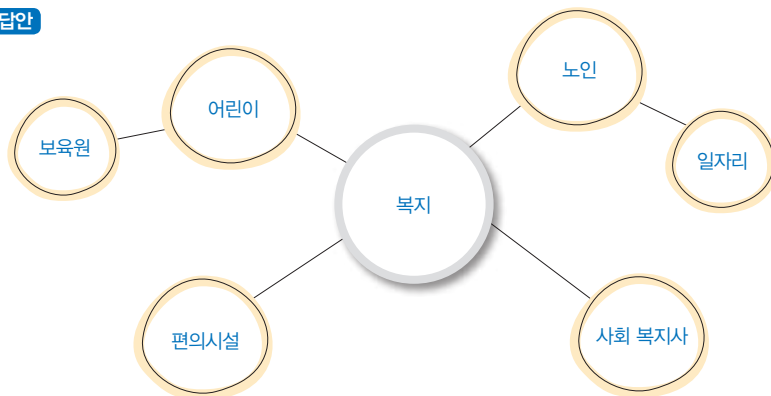
중심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생각을 연상하고, 연상한 내용끼리 서로 연결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생각그물을 짜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어와 심상을 떠올려 본 다음, 이를 엮어 나가야 한다.

예 예술 음악 피아노

1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직업을 떠올리며 다음 생각그물을 채워 보자.

예 경영·금융, 보건·복지·의료, 법률·경찰·소방,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여행·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농림·수산 해양 등.

예시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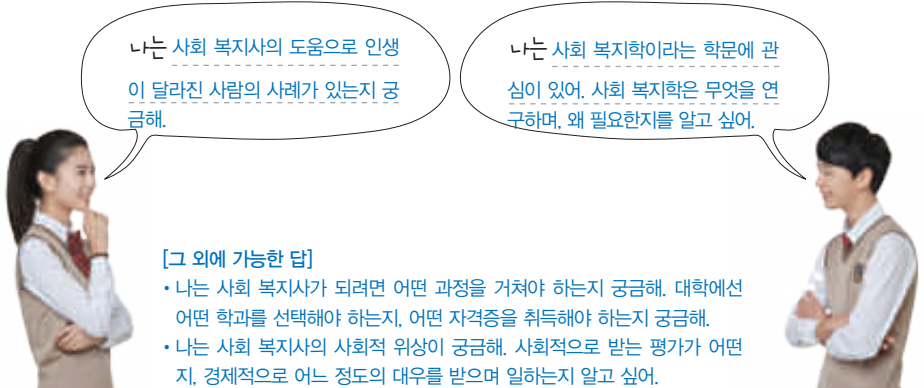
활동 안내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둠을 이루어 함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이다.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책을 선정하는 과정,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에서 자신이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그 외에 가능한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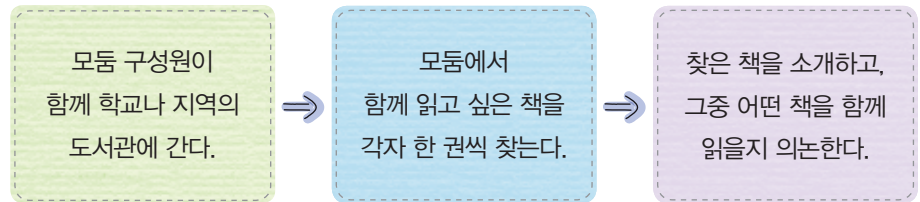
- 나는 사회 복지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 대학에선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해.
- 나는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위상이 궁금해. 사회적으로 받는 평가가 어떠한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지 알고 싶어.

☺ 도움말

함께 읽을 책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모둠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를 다룬 책인가?
- 주어진 시간 내에 읽기에 적절한 분량인가?
-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2) 다음 과정에 따라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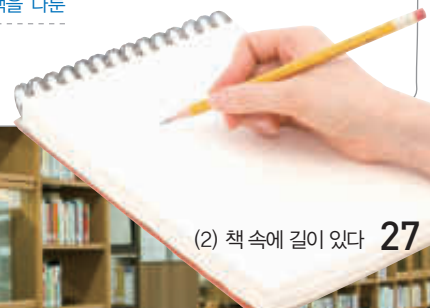
예시 답안

- 심윤우, 『사회 복지사의 글쓰기 365일』(공동체, 2016)
- 사회 복지사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쓴 책으로, 자기 일과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의 책이다.
- 박미은, 『사회 복지사를 위한 사례 관리』(양서원, 2015)
- 사회 복지사가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는 책이다.

(3) 정한 책을 읽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하면서 독서 계획을 세워 보자.

예시 답안

- **제목:**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저자:** 오연호
- **출판사, 발행 연도:** 오마이북, 2014
- **이 책을 고른 이유:** 친구들마다 사회 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조금씩 달랐다. 우리는 토론 끝에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따져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데 동의했다. 인터넷을 통해 '복지'와 관련된 책을 조사한 결과, 북유럽 국가 덴마크의 복지 정책을 다룬 이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기로 하였다.



도움말

읽은 책의 내용을 돌아보며 빈칸을 채우고, 왜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야기한다. 이처럼 모둠 구성원과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면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4) 책을 읽은 후 각자 다음 표를 채우고,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예시 답안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덴마크는 유엔(UN)의 행복 지수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나라이다. 어떤 복지 정책 덕분에 1위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행복한 사회의 비밀은 복지 제도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유, 평등, 신뢰, 이웃 등…….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은 후 생각이 달라진 점	복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읽게 된 책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삶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활동 안내 모둠 활동 이후에 각자 자신의 독서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스스로의 독서 태도와 함께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돌아보고, 각자가 표 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다음 표의 평가 내용에 따라 자신의 독서 활동을 점검해 보자.

예시 답안

평가 내용	평가 결과와 이유
책의 내용이 책을 고른 이유에 적합한 것이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다. 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알게 되었다.
모둠 토의를 하며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거나 달라진 점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었다.
독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읽기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재미있게 읽으며 읽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적용



활동 안내 앞에서 했던 활동을 종합하여 모둠별로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내용을 꾸밀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다음은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만든 독서 신문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진로와 관련된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자.



모둠

1학년 3반 '셋별' 모둠의 진로 독서 신문

셋별신문

*'셋별'은 장래에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순우리말입니다.

☆ 우리가 읽은 책

임영주 외, 『기자가 말하는 기자』: 24명의 전·현직 기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기자로서의 직업의식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언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정하였다.

☆ 책 속의 한 구절

- '기자는 분명히 사회의 어려움과 힘든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 '기자는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넓고 깊은 상식을 갖춰야 한다. 사고는 냉철하면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 '외국어 능력뿐 아니라, 뉴스를 포착하는 감각, 사건을 해석하는 균형 감각, 무엇보다도 국제적 시각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 우리의 짧은 독후감

- 기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을 읽으며, '그냥 기자'가 아니라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함을 깨달았다.

📖 책 밖에서 찾은 지식 - 기자가 되는 방법

기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전공은 없다. 다만 기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써야 하므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고,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각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 다음에 읽을 책

박종인, 『기자의 글쓰기』

짧고 쉽고 그럴듯하게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현직 기자인 글쓴이가 실제로 쓴 기사를 예로 들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예시 답안 <교사용 지도서 8쪽 참고>



스스로 정리하기

이 단원에서는 「책 속에 길이 있다」를 읽고,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찾아 읽고 그 내용을 공유해 보았다. 앞으로도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찾아 읽으며, 읽기의 즐거움을 느껴 보자.



단원의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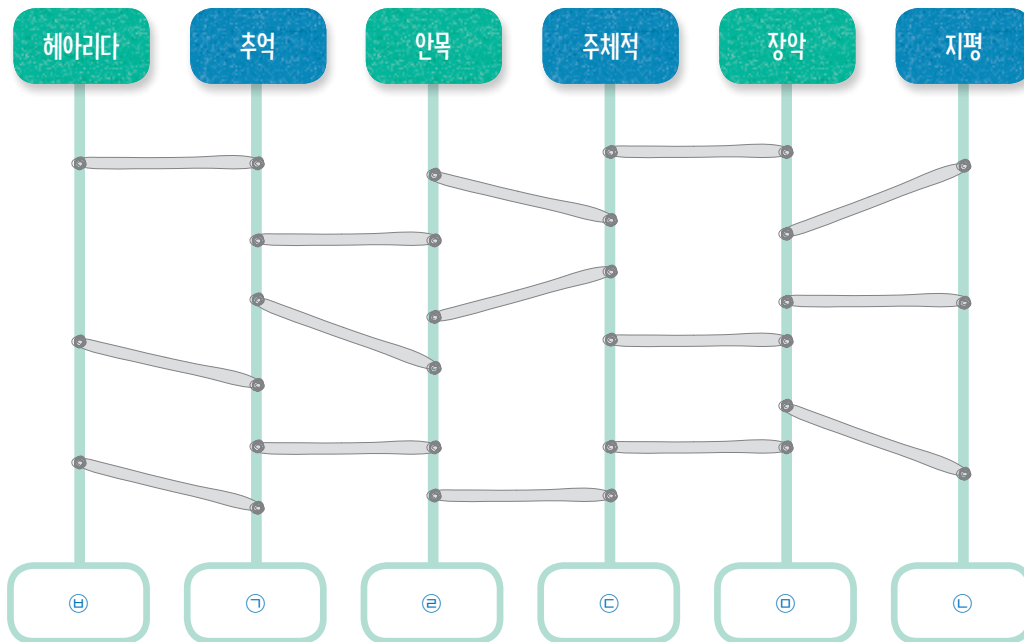
1쪽 학습지

소단원별 '어휘 학습' 및 '학습지'로 소단원 어휘 및 내용 학습을 추가로 할 수 있음.

어휘 학습

활동 안내 대단원에서 배운 어휘와 뜻풀이를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며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음 어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각 어휘에 맞는 풀이를 보기 에서 골라 그 기호를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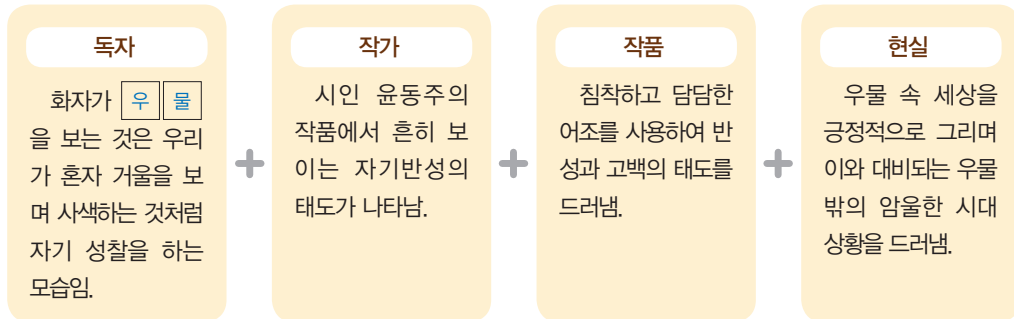
보기

- ㉠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 - 안목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
- ㉡ 집착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 - 헤아리다
- ㉢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 - 추억
- ㉣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지평
- ㉤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또는 그런 것. - 주체적
- ㉥ 손안에 잡아 친다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 - 장악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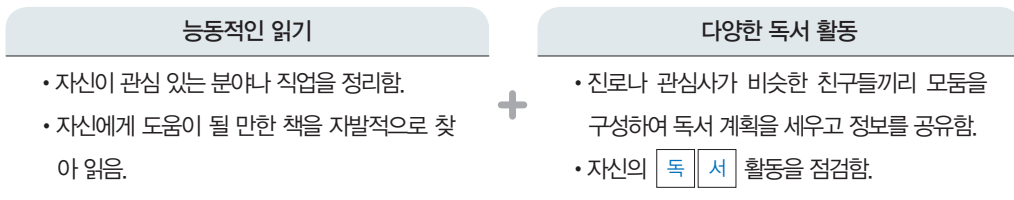
(1) 자화상

- 「자화상」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



(2) 책 속에 길이 있다

-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책 읽기



이 단원을 마치며

- ☑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 ☑ 문학 작품을 해석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
- ☑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을 수 있다.
- ☑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을 읽고, 책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활동 안내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와, 단어에 반영된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직업의 이름을 찾아보되,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보다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주로 찾도록 하여, 특정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

직업의 이름, 사회적 인식

직업의 이름에는 직업의 특성과 그 직업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녹아 있다.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살펴보고 어떤 사회적 인식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자.

꾼,
장이,
바치



전통 사회에서 공업과 상업 등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직업에는 ‘꾼’, ‘장이’, ‘바치’와 같은 말이 붙었다. ‘나무꾼’, ‘지게꾼’, ‘장사꾼’, ‘미장이’, ‘채소, 과일, 화초 따위를 집에서 가꾸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원예사’, ‘옹기장이’, ‘갓바치’, ‘동산바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업들은 근대 가족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 화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공(工),
수(手)



이 말은 몸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 붙는다. ‘석공(石工)’, ‘인쇄공(印刷工)’, ‘목수(木手)’, ‘가수(歌手)’, ‘무용수(舞蹈手)’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夫),
부(婦)



이 말은 각각 남성 일꾼과 여성 일꾼을 가리킨다. 따라서 ‘부(夫)나 부(婦)’가 붙는 직업의 이름에는 특정한 성별이 그 직업에 종사한다는 인식 이 담겨 있다. ‘광부(鑛夫)’, ‘잠수부(潛水夫)’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士),
사(師),
감(監)



유교적 관료 체제 아래에 있던 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말이다. ‘변호사(辯護士)’, ‘세무사(稅務士)’, ‘변리사(辨理士)’ 등에 붙은 ‘사(士)’는 그 직업이 유교적 사회에서 체제 관리에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의사(醫師)’, ‘교사(教師)’, ‘약사(藥師)’처럼 유교의 가치관에 서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던 직업에는 ‘스승 사(師)’ 자를 붙이기도 한다. 그리고 조선 시대 관직에 붙던 ‘감(監)’은 ‘교육감(教育監)’, ‘교감(校監)’, ‘치안감(治安監)’ 등의 명칭에 쓰이고 있다.

간호부(看護婦)에서 간호사(看護師)까지

일제 강점기에 ‘간호부(看護婦)’라고 부르던 직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간호사(看護師)’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직업은 같은데 직업의 이름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가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간호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변화된 인식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각이 확산되면서 다른 직업의 이름도 변화하였다. ‘운전수(運轉手)’가 ‘운전사(運轉士)’ 또는 ‘운전기사(運轉技士)’로, ‘가정부(家政婦)’가 ‘가사도우미’로 바뀌어 쓰이는 것이 좋은 예이다.



국어
속
진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직업의 이름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이름이 붙었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직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대에 와서 달라진 점은 없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독서 일지 쓰기

독서 공책 활동지

활동 안내 다양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책을 선정하여 한 권의 책을 읽어보는 독서 활동이다. 스스로 읽기 과정을 계획·점검·조정할 수 있게 하여 자발적인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독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독서 공책 ① 독서 일지 쓰기

독서 공책 ② 모둠 대화하기

독서 공책 ③ 독서 토론하기

독서 공책 ④ 서평 쓰기

독서 공책 ⑤ 나만의 책 만들기

☆ 독서 계획 세우고 책 선정하기

책 읽는 시간 정하기

- 수업 시간 중에 10분씩을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하면, 차분한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책 읽기가 친근해지고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 한 교시의 수업 시간을 온전히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하면, 몰입하여 책을 읽을 수 있고, 깊이 있는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다.
- 수업 시간 외의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자습 시간 등에서 일부분을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책 고르기

- 교과서 부록의 추천 도서 목록, 학교나 다양한 독서 전문 기관에서 선정한 도서 목록을 이용한다.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읽을 만한 도서를 선정하여 우리 반의 도서 목록을 만든다.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책마다 난이도를 매기면 각자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기가 쉽다.

책 준비하기

- 자신이 읽을 책 직접 사기: 동네 서점, 중고서점, 인터넷 서점 등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직접 산다. 자신이 읽을 책을 직접 고르는 경험은 책을 보는 안목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책 읽기 활동에 큰 애착을 느끼게 한다.
- 지역 및 학교 도서관 이용하기: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다.

내가 읽을 책 정하기

예시 답안

- 제목: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 저자: **홍성일**
- 출판사: **돌베개**
- 발행 연도: **2014**
- 이 책을 고른 이유:

나는 오래 전부터 기사를 꿈꿔 왔다.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기자가 일하는 현장의 생생함을 담고 있다고 하여 선택하였다.

☆ 독서 일지 기록하기

예시 답안

독서 일지 제목	나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 준 책 읽기		
책 제목	저자	읽은 날짜	읽은 쪽수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홍성일	3. 20.~4. 20.	1~216쪽
인상적인 문장이나 대사,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적인 문장: 뉴스가 기대는 익숙함의 방식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틀에서 벗어나 뉴스를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 그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여 주는 뉴스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 무비판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게끔 한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땐, 익숙한 내용일지라도 낯설게 보는 태도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p>이 책에서 '나쁜 기자'는 개인의 기자 윤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론사에 속한 기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언론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나쁜 기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했다. 또 언론사의 구성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고 싶었다.</p>		
읽고 나서 깨달은 점 혹은 느낀 점	<p>요즘은 뉴스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는 정보가 쏟아진다. 이 책은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이러한 시기에 꼭 읽어볼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고등학생인 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나는 막연히 기자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기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알게 됐고,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p>		

☆ 읽기가 끝난 후 독서 활동 돌아보기

내가 읽은 책 정리하기

책의 핵심 내용, 저자의 의도, 자신에게 미친 영향, 읽은 후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등.

독서 일지를 기록하며 느낀 점

책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는지,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없었는지 등.

읽기 방법의 점검 및 조정

책을 읽는 속도는 적절했는지,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었는지, 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며 읽었는지 등.